

고흥군,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도입...방송 사각지대 없앤다

읍·면 담당자 및 관내 515개 전 마을 이장 대상 순회 교육 주민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로도 마을 방송 수신 가능 방식

고흥군은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후 지난 8일부터 읍·면 담당자 및 관내 515개 전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사용에 대한 읍·면별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면 옥외 스피커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의 휴대전화 및 유선

전화로도 마을 방송 수신이 가능한 방식이다. 기존 옥외 스피커로 방송되는 마을 방송시스템의 방송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해 상시 안정적인 마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주민들은 마을 방송과 휴대폰, 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마을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

며, 마을 방송을 즉시 청취하지 못했을 때는 재청취도 가능하다.

스마트 마을 방송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고흥군 스마트마을방송(청취용)' 앱(APP)을 다운받거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별 사용자 교육을 마친 후 오는 3월부터 고흥군 전체에 운영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이 활성화돼 각종 재난·재해·행정 방송의 청취율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호응 속 시작 발로 뛰는 열정으로...김철우 군수 색다른 군민과의 대화 '눈길'

보성군은 지난 8일 김철우 군수가 별교읍 채동선음악당과 조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 단위로 열리는 '2024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형식을 수정 보완해 군민과 깊은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읍·면 건의 사항을 사전에 신청받아 개인적 애로사항 건의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를 해결하고 마을이나 읍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건의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2024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멋진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종료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주 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이 전세피해 임차인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

환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금융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는 평일 낮 시간대에 방음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됐으며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올해 어르신 9600여명에 일자리 제공...역대 최대 규모

293억 원을 투입, 전남도 내 최대...여수문화홀에서 발대식 열어

여수시가 올해 관내 어르신 9,598명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293억 원을 투입, 사업량 및 활동분야를 확대했으며 전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올 한해 공익활동, 사회서비

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의 90개 사업에 투입돼 사업유형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 이내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지난 9일 오전 여수문화홀에서는 읍면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기관인 여수시니어클럽 등 9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대상자로 선정된 3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발대식이 열렸다.

발대식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 이어 안전교육과 전문강사의 소양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청년 부부 혼인신고하고 200만 원 받자"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부부 대상

순천시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4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6개월 까지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다.

부부 모두 전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

하면 된다. 결혼축하금 200만원은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일 다음 달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749-5615)으로 하면 된다.

나올런 청년정책 과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청년 부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1,685명이 결혼축하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시, 시정운영 능력 2023년에도 빛났다

대외기관 평가 81개 분야 수상

순천시는 2023년 한해 중앙정부, 전라남도 등 총 81개 분야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약 15억 3000만원의 재정 인센

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순천시가 정부와 대외기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하고 수준 높은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대한민

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천시 관계자는 "완성도 높은 정책추진으로 도시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내년에도 더 높고 새로운 순천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